

I. 승예의 『대지도론』 서문

[k. 1, p. 57a, b]¹⁾

摩訶般若波羅蜜經釋論序

長安釋僧叡述

057a01
057a02 N° 1509 [cf. N° 223]
057a03 摩訶般若波羅蜜經釋論序
057a04
057a05 長安釋僧叡述
057a06 夫萬有本於生生而生。生者無生。變化兆於
057a07 物始而始。始者無始。然則無生無始物之性
057a08 也。生始不動於性。而萬有陳於外。悔吝生於
057a09 內者。其唯邪思乎。正覺有以見邪思之自起
057a10 故。阿含爲之作。知滯有之由惑故。般若爲之
057a11 照。然而照本希夷。津涯浩汗。理超文表。趣絕
057a12 思境。以言求之則乖其深。以智測之則失其
057a13 旨。二乘所以顛沛於三藏。雜學所以曝鱗於
057a14 龍門者。不其然乎。是以馬鳴起於正法之餘。
057a15 龍樹生於像法之末。正餘易弘。故直振其遺
057a16 風瑩拂而已。像末多端故。乃寄跡凡夫。示悟
057a17 物以漸。又假照龍宮。以朗搜玄之慧。託聞幽
057a18 祕。以窮微言之妙。爾乃憲章智典。作茲釋論。
057a19 其開夷路也。則令大乘之駕方軌而直入。其
057a20 辯實相也。則使妄見之惑不遠而自復。其爲
057a21 論也。初辭擬之。必標衆異以盡美。卒成之終
057a22 則舉無執以盡善。釋所不盡。則立論以明之。
057a23 論其未辯。則寄折中以定之。使靈篇無難喻
057a24 之章。千載悟作者之旨。信若人之功矣。有鳩
057a25 摩羅者婆法師者。少播聰慧之聞。長集奇拔
057a26 之譽。才舉則亢標萬里。言發則英辯榮枯。常
057a27 杖茲論焉。淵鏡憑高。致以明宗。以秦弘始三
057a28 年歲次星紀。十二月二十日。自姑臧至長安。
057a29 秦王虛襟既已蘊在。昔見之心豈徒則悅而
057b01 已。晤言相對。則淹留終日。研微造盡。則窮
057b02 年忘倦。又以晤言之功雖深。而恨獨符之
057b03 心不曠。造盡之要雖玄。而惜津梁之勢未普。
057b04 遂以莫逆之懷。相與弘兼忘之慧。乃集京師
057b05 義業沙門。命公卿賞契之士。五百餘人集於
057b06 渭濱逍遙園堂。鑾輿佇駕於洪浹。禁禦息警
057b07 於林間。躬覽玄章。考正名於梵本。諮通津要。
057b08 坦夷路於來踐。經本既定。乃出此釋論。論之
057b09 略本有十萬偈。偈有三十二字。并三百二十

1) 『신수대장경』 석경론부 1509번째 경, 저본은 구마라지바 번역 『마하반야바라밀경』이다. k 1=大正藏 권 제1: p 57=57쪽; c=하단. 즉 大正藏의 『大智度論』(Mpps) 1권, 57쪽, 하단을 지시함(abc 즉 상중하 삼단으로 구성됨).

057b10 萬言。梵夏既乖。又有煩簡之異。三分除二。
 057b11 得此百卷。於大智三十萬言。玄章婉旨朗然
 057b12 可見歸途直達。無復惑趣之疑。以文求之。無
 057b13 間然矣。故天竺傳云。像正之末。微馬鳴龍樹。
 057b14 道學之門。其淪胥溺喪矣。其故何耶。寔由
 057b15 二未契微。邪法用盛。虛言與實教並興。嶮徑
 057b16 與夷路爭轍。始進者化之而流離。向道者惑
 057b17 之而播越。非二匠其孰與正之。是以天竺諸
 057b18 國。爲之立廟。宗之若佛。又稱而詠之曰。智慧
 057b19 日已頹。斯人令再曜。世昏寢已久。斯人悟令
 057b20 覺。若然者眞可謂功格十地。道侔補處者
 057b21 矣。傳而稱之。不亦宜乎。幸哉此中鄙之外。忽
 057b22 得全有此論。梵文委曲。皆如初品。法師以
 057b23 秦人好簡故。裁而略之。若備譯其文。將近千
 057b24 有餘卷。法師於秦語大格。唯譯一往。方言
 057b25 殊好。猶隔而未通。苟言不相喻。則情無由比。
 057b26 不比之情。則不可以託悟懷於文表。不喻之
 057b27 言。亦何得委殊塗於一致。理固然矣。進欲停
 057b28 筆爭是。則交競終日。卒無所成。退欲簡而便
 057b29 之。則負傷於穿鑿之譏。以二三唯案譯而書。
 057c01 都不備飾。幸冀明悟之賢。略其文而挹其玄
 057c02 也

「마하반야바라밀경석론서」
장안에서 석승에 지음

무릇 만유라는 것이 현상을 생기게 하는 원리를 근본으로 생겨나는 만큼 생겨남은 생겨남이 아니고, 변화는 사물의 시작과 더불어 그 조짐을 드러내며 시작하니 시작 또한 시작이 아니라. 그렇게 생겨남도 없고 시작도 없음이 사물의 본성이니, 생겨남과 시작이 성품에 작동되지 않아도 만유는 밖으로 펼쳐지게 마련이라.

안에서 생겨나는 뉘우침²⁾이 어찌 사특한 생각의 경우뿐이라. 바른 깨달음으로 사특한 생각이 절로 일어남을 볼 수 있음에 아함이 이루어지고, 지식에 빠짐은³⁾ 미혹으로 말미암기에 반야로 비추어 보이네. 하지만 근본⁴⁾은 심오하고, 방책은 광대하며, 이치는 문표 너머에 있고, 선별은 생각의 경지⁵⁾를 끊어버리는 법, 말로 구하면 그 심오함과 어긋나고, 지식으로 추정하면 그 본지를 잃고 마네. 이승⁶⁾이 삼장에 걸려 무너지니, 잡학이 용문에서 햇별에 비늘을 말리는 소이가 그러한 법이라.

이런 연유로 정법⁷⁾ 말기에 마명이 일어나고, 상법⁸⁾ 말기에 용수가 태어났다네. 정법 말기에 포교가 용이하였기 때문일세. 고로 마명이 곧 자신이 물려받은 유풍을 개발하고 쇄신하였어도

2) 悔吝
 3) 知滯
 4) 照本
 5) 思境
 6) 二乘
 7) 正法
 8) 像法

상법 말기에 이르러서는 혼란이 극심해지니 범부들과의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가도록 법칙을 베풀었다네. 나아가 용수는 광명을 얻고자 용궁에 들어가 현묘함을 탐구하며 지혜를 깨우쳤지. 그리고는 오묘한 언어의 경이로움을 파헤치기 위하여 심오한 신비⁹⁾ 탐구¹⁰⁾에 매진하여 반야경¹¹⁾을 전범으로 논의를 추가하여¹²⁾ 석론을 집필하였다오.

석론으로 평탄한 길이¹³⁾ 열려 대승의 수레로 궤도를 따라 곧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 진정한 성품을 변론하니, 망견의 미혹됨으로 멀리 벗어나지 않고 스스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 이 논서의 시작은 반드시 다른 유파와의 차이를 표명해서 아름다움을 다하게 하고, 그 마무리 이름은 집착 없음을 들어서 선함을 다하게 하였으니, 풀이가 미비하면 논리를 세워 밝히고, 논리로 설명되지 않으면 중도에 의거하여 정하였네. 도교 경전처럼 어려운 비유의 장이 없도록 하여 천고에 작자의 취지를 깨우치게 한 것은 참으로 용수 이분의 공덕이리.

또한 꾸마라지바 법사는 젊어서는 총명하다는 명성이 났고, 장년이 되어서는 기발하다는 명성을 모았다오. 재기를 펼치면¹⁴⁾ 만 리에 우뚝 드러나고, 입을 열면 영고성쇠에 관한 빼어난 변론도 서슴지 않았네. 그는 항상 이 석론에 의지하였으니, 수면처럼 맑은 거울이 높은 하늘에 의지해 나아가 근본을 밝힘과 같았고. 진나라 흥시 삼년(CE 401), 간지로 따지면¹⁵⁾ 성기¹⁶⁾ 십이 월 이십 일에 고창(감숙성 무위현)¹⁷⁾으로부터 장안에 이르러 비로소 진나라 왕의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니, 옛 시절부터 기루어 온¹⁸⁾ 마음이 어찌 기쁨에만 그치리오.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종일토록 머물고, 세밀한 참구를 이루고 다해, 해가 다 가도록 질릴 줄 몰랐다네.

더욱이 담론의 공이 비록 깊기는 해도 유독 상응하는 마음이 넓지 못해 한스럽고, 비록 이루어 낸 요체는 현묘해도. 그 개념의 형세가 일반화되지 못함이 애석하였네. 마침내 막역한 마음으로 함께 잇고 있던¹⁹⁾ 지혜를 넓혀서 장안의 의업을 달성할 사문을 모집하고 귀족 가운데 함께 내밀히 찬할 인사들에게 명하니 오백여 명이 위²⁰⁾ 강변의 소요원당²¹⁾에 모였네. 이제 황제의 마차가 큰 물가²²⁾에서 수레를 기다리고 숲에서의 휴식과 왕래도 엄히 금지되었네. 현장을 몸소 열람해서 범본에서 정명²³⁾을 고구하고, 요지를 묻고 꿰뚫어²⁴⁾ 길을 평탄하게 하니 어서 이리로 오시어 그 길을 따라가 보라.

경본이 이미 정해져 이 석론을 내게 되었으니 그 약본이 십만 계송에 이르고, 계송 하나는 삼십 이자이므로, 아우르면 삼백이십만 언²⁵⁾에 이르렀네. 이미 인도와 중국이 다르고 또 복잡 간명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 삼분의 이를 빼고 지금의 백 권을 추렸네. 대지²⁶⁾ 삼십만 자²⁷⁾에

9) 幽祕
10) 搜玄
11) 智典
12) 茲
13) 夷路
14) 才擧
15) 歲次
16) 星紀
17) 姑臧
18) 昔見
19) 兼忘
20) 渭((서안 북부)
21) 逍遙園堂
22) 洪濙
23) 正名
24) 諮通津要
25) 言
26) 大智

서도 현묘한 문장의 은근한 아름다움을 맑고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고, 돌아가는 길이 직접 통하니 다시 의심이 일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어 글로써 구하고자 해도 차이는 없으리라.

하여 천축국에서 전하길 상법·정법의 끝물에 이르러 마명과 용수가 아니었으면 도학의 문이 잠겨버렸을 것이라 하였다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에 두 가지 잘못으로 말미암아 사법²⁸⁾이 성하게 되어 거짓과 참 법칙이 나란히 흥하고, 험난한 길²⁹⁾과 평탄한 길을 다투게 되니 처음 나선 자는 변해 물러나고 도를 향하던 자는 미혹되어 어긋남을 퍼뜨리니 두 어른이 아니라면 누가 바로잡아 주었으리오.

이 때문에 천축 여러 국가에서는 사당을 세워 부처님처럼 높이 모시었다오. 이뿐 아니라 찬 시까지 헌정하여 “지혜의 해가 이미 기울고 말았어도 이분들이 다시금 밝히셨네. 혼탁한 세상 잠에 빠진 지도 이미 오래라, 이분들이 일깨워 알게 해주셨네.”라고 읊기도 하고. 이 같은 분은 참으로 그 공과 격이 십지³⁰⁾ 단계에 이르렀고 도를 닦아 기르는 경지에 이른 어른이시니 전하여 칭송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다행스럽게도 그 비루함을 벗어나 홀연히 이 석론 전체를 얻을 수 있었으나, 범문³¹⁾의 굴곡³²⁾이 모두 초품과도 같다오. 진나라 사람들이 간략함을 좋아하기에 법사는 그 역문을 갖추듯 요약해놓고 보니 거의 천여 권에 이르네. 법사는 진나라 말로 읊기면서 오직 한 가지 역문으로 일관하였네. 지역 언어가 특히 적합해도 오히려 격차가 있어서 통하지 않기에. 만약 말로 비유되지 않으면 뜻³³⁾으로 비유할 수도 없고. 뜻으로 비유할 수 없다면 드러난 글³⁴⁾에 깨달음³⁵⁾도 담을 수 없으리. 말로 비유할 수 없는데 어찌 서로 다름을 하나로 귀의시킬 수 있으리오³⁶⁾ 이치가 참으로 그러한 것일세. 나아가 논쟁을 멈추고자 해도 종일토록 서로 다투어서 끝내 이룰 수 없으리니, 물러나 간편하게 하고자 한다면 천착한다는 비난에 상처를 입으리니 두세 가지 생각만³⁷⁾으로 번역해서 쓰고 모두 갖추어 꾸미지 않으니 밝게 깨달은³⁸⁾ 현자들이 이 문장을 보고서 그 현묘함을 길어 올리시길 기원하노라.

27) CBETA는 『대지도론』를 약 구십육만만자로 추정함.

28) 邪法

29) 嶮徑

30) 十地

31) 梵文

32) 委曲

33) 情

34) 文表

35) 悟懷

36) 亦何得委殊塗於一致

37) 唯案

38) 明悟